

# 광주·전남 반짝 폭염 뒤 폭우 온다

### 내일 오전 장마 시작, 전 지역에 50~150mm 비 예상 시속 70km 돌풍 동반...상습침수구역 등 철저 대비

한낮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보이며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토요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장마는 당초 예상보다 하루 일찍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일 오전 10시를 기해 광주와 나주·순천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지난 30일 전남 내륙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담양을 포함,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은 2일 하루 최고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면서 매우 더울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더위는 2일 정오 예보된 소나기의 영향으로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2일 정오부터 밤 9시까지 5~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다고며,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 될 것으로 예상했다.

3일부터는 광주·전남지역을 포함한 남부지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장마는 3일 오전(9~12시) 전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정오~오후 3시)에 광주·전남 전지역으로 확대된다.

이번 장마의 예상 강수량은 3일부터 4일까지 광주와 전남 내륙지역에 50~100mm, 전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는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와 함께 일부지역에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특히 3일 밤과 4일 오전사이 장마전선 부근으로 저기압을 동반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 비구름이 더욱 강해지면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장마는 최근 한반도 주변 상공에 머무르면서 정체전선의 북상을 저지하던 찬 공기가 동쪽으로 빠져나감에 따라 예상보다 하루빨리 장마전선이 우리나라로 북상, 전국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

했다.

4일 오후부터는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광주와 전남 내륙지역에는 비가 주춤하겠지만 남해안은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장마전선이 3~4일 주기로 통과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북상과 남하를 반복하면서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장마는 강풍도 동반한다. 3일 오후부터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시속 35~60km의 강풍과 순간최대 풍속 시속 70km의 돌풍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서해남부 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시속 35~60km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물결이 2~4m로 높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도시 내 소화천과 지하도, 우수관 및 상하수도 관과 저지대 등 상습침수구역과 산간, 계곡에는 물이 급격히 불어나 범람과 침수로 인해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철저한 사전 점검과 함께 비가 시작되기 전부터는 접근과 작업을 자제하는 등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BBC도 주목' 전남농산어촌유학 2기 유학생 모집 전국으로 확대

### 도교육청, 8일까지

전남교육청이 코로나19 시대 대안 교육으로 주목받는 전남농산어촌유학 2기 프로그램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전남 20개 시·군 총 64개교(초 48개교·중 16개교)에서 2기 유학생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본격 모집에 나섰다.

앞선 1기 때는 서울 지역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데 비해 2기에는 광주 등 전국으로 모집대상을 확대했다.

2기 유학생 모집은 오는 8일까지다. 서울과 광주 지역은 재학생인 학교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외 다른 지역은 전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혁신교육과로 제출하면 된다.

도 교육청은 최근 광주시교육연수원에서 광주 지역 학부모와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대면 설명

회를 진행했으며, 서울 대치초등학교에서 서울 지역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 교육청은 이번 설명회 영상을 서울과 광주·전남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탑재,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영국 공영방송인 BBC가 전남도교육청 역점사업인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BBC는 최근 월드 뉴스와 인터넷 뉴스 사이트 아시아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전 세계가 원격수업을 선택하는 가운데 농산어촌 유학이 새로운 대안으로 시도되는 데 주목해 '혁신적인 정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관련 내용을 알렸다.

'서울 학생들 농촌으로 향하다'라는 제목으로 제작한 영상뉴스에는 지난 3월부터 순천 월등초등학교로 유학 온 서울 학생 7명의 학교생활과 일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았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사회적경제시장터 열렸다**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사회적경제시장터'가 1일 광주 서구 유스퀘어 앞 야외광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서구 관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사업단, 청년기업, 소상공인 16개소가 참여해 각종 식품류 및 수공예품 등 다양하고 질 좋은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북구,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선정

광주시 북구가 고용노동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관한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평가에서 광주·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친화도시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해 지역기반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실시됐다.

북구는 청년센터와 사회적경제 커뮤니티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청소년 사회적경제 학교,

가족단위 체험 교실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활동을 펼친 성과를 인정받아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친화도시로 선정됐다. 또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판로지원을 위한 우선구매 공시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동판매장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일본뇌염 모기 주의하세요

### 모기 개체수 6월 9600마리 급증... '작은빨간집모기'도 발견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모기 개체수가 크게 증가해 물릴 경우 일본뇌염 등의 모기매개질환에 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구원은 일본뇌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매개 감염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절기는 아파트 주변, 하절기에는 도심 숲, 호수공원, 야산 및 축사 등에서 연중 모기를 채집해 중분포 조사와 함께 일본뇌염바이러스 등 5종의 병원체에 대해 조사해 오고 있다. 모기매개질환 5종은 일본뇌염,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황열, 치쿤구니야열 등이다.

조사 결과 1월부터 5월까지 145마리였던 모기

채집 수가 6월 들어 9657마리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는 지난 3월22일 제주도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첫 채집돼 전국에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95명의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해 12명이 사망했고, 이 중 광주에서는 환자 7명 중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일본뇌염은 축사 등에서 서식하는 작은빨간집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으로, 250명 중 1명 정도로 급성뇌염과 무균성수막염 증상이 나타나고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신경계 합병증이 남을 수 있다고 알려졌다.

/박진표 기자 lucky@

## 광주 남구 '양림동 테마투어' 운영단체 모집

### 건축·선교·예술 부문 14일까지

광주 남구는 1일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테마별 전문 문화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양림동 테마투어 프로그램 운영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개 모집 분야는 건축과 선교, 예술 등 3개 테마이며, 모집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광주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문화 또는 예술, 관광, 종교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남구는 사업 단체의 적격성을 비롯해 사업 내용의 독창성·적합성·실행 가능성, 사업 진행에

따른 지역사회 기여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및 구체성, 사업 홍보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각 테마별 운영 단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 단체는 각각 600~7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양림동 테마투어 프로그램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이 축소 또는 취소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의 특색 있는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고품격 문화해설 서비스를 제공해 양림동 일대 관광산업과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운영단체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창립 4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대상

300만원 상당(1명)  
금 10돈

1등

100만원 상당(1명)  
건조기

2등

50만원 상당(2명)  
청소기

3등

30만원 상당(3명)  
쿠쿠밥솥

4등

10만원 상당(10명)  
에어프라이어

5등

5만원 상당(20명)  
온누리상품권

※본 경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이며 상기 조건은 추첨일까지 유지자에 한합니다.

경품행사기간 : 6월 21일 ~ 10월 31일

#경품추첨일 2021년 11월 10일 #경품추첨장소 대광고 본점 3층 회의실  
#경품응모권 지급 조건 ①저동이체 신규 및 변경(최소 5건 이상) ②출자금 신규 및 추기(최소 30만원)  
#가입기본선들 고급 통장케이스 증정

MG대광새마을금고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지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